

[VER_3.5] 2018. 9. 16

심야카페

제작 케이드래곤
각본/감독 구자준
010 3372 7260
pennyeach@naver.com

특별한 카페에 대하여...

밤 12시부터 해가 뜰때까지만 운영하는 특이한 카페가 있다.
이곳에는 시공을 초월한 손님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나타난다.
카페의 마스터 지훈은 손님에 따라 혹은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마음대로 메뉴를 정해 대접하곤 한다.

이곳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인 광고를 발견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허접하게 쓰인 구인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네비게이션이나 지도로는 찾을 수 없는
장소를 약도만 보고 찾아와야 한다.
운이나 끈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카페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만약 운이 좋아 카페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등장인물

하재영 23세

_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중인 대학생. 알바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악전고투 중이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고달픈 청춘. 대학 선배 이민아를 3년째 짝사랑하고 있지만, 매번 잘못된 방법의 고백과 진상 짓으로 손절 당하고, 남친과 함께 있는 모습에 멘붕한다.

이지훈_??세

_ 나이도 경력도 알 수 없는 30대 중반 추정 심야 카페 마스터. 음료와 디저트 종류는 못하는게 없고, 어디선가 신기한 재료를 구해와 신기한 맛을 낸다. 매일 컨셉을 잡고 의상을 선택하고, 카페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민아 26세

_ 재영의 첫사랑.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잘 다니며, 남자도 꾸준히 만나고 있지만 이상하게 재영에게는 모질게 굴지 못한다. 일편단심 자신을 좋아하는 재영이 귀엽기도 하지만, 애는 매번 왜이럴까 싶어 답답하기도 하다.

김나연 2x 세.

_ 재영의 미래(?)의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직장인 여성. 카페에 찾아와 수수께끼같은 말로 실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재영에게 힌트를 계속 준다.

ep1. 밤에 마시는 커피는 달다

1. 카페. 밤. 실내

화면 밝아지면 심야카페의 마스터 지훈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

커피 콩을 그라인더에 갈고, 필터 위에 탁탁 털어넣고, 그 위로 섬세한 물줄기를 붓는다.

가. 재영(NA)

1) 밤 12시부터 해가 뜰 때 까지만 영업하는 카페가 있다.

서버에 한방울씩 떨어지는 뜨거운 커피. 하얗게 김이 서린다.

심플하고 세련된 커피잔 세트에 갖내린 뜨거운 커피를 따르고, 트레이를 들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지훈.

나. 재영(NA)

1) 메뉴는 따로 없고 마스터가 알아서 준비해 준다.

따뜻한 김이 오르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 향을 음미하는 누군가. 호로록- 가볍게 한 모금 마셔본다.

다. 재영(NA)

1) 이 카페의 마스터는 어떤 음료든 기가 막힌 맛을 낼 줄 아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녔다.

주변을 둘러보는 재영. 생각보다 손님이 많은 카페 내부.

첨단 기기와 골동품이 뒤섞인 모한 분위기의 소품들이 뒤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 손님들도 자세히 보면 모하게 시대에 맞지 않는 스타일을 하고 있다.

라. 재영(NA)

1) 독특하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나는 이 곳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재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을 쳐다보면,

마. 지훈

1) 편안한 밤 되십시오.

마치 알프레도 같은 모습으로 과할 정도로 잘 갖춰 입은 마스터 지훈. 동작 하나하나 각이 잡혀있다.

재영이 눈인사를 하자 무심하게 고개를 끄떡 하고는 카운터로 사라진다.

떨어지는 지훈의 뒷모습을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는 재영.

주머니에서 꼬깃하게 접어둔 구인광고 전단을 펼쳐 본다.

‘심야카페 밤12시~해뜰때까지. 일당 10만원’

바. 재영(NA)

- 1) 여기서 일하려면 각잡고 제대로 해야할거 같다. 너무 뻥세보이는데...? 내가 일해도 괜찮은 걸까...?

카운터에 자리잡은 지훈. 능숙한 동작으로 식기를 정리하고, 음료를 준비한다.
안되겠다는 듯 고개를 흔들고는, 전단지를 접어 들고 일어나는 재영.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다가간다.

사. 지훈

- 1) 내일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아. 재영

- 1) (화들짝) 네?

자. 지훈

- 1) 알바하러 온거 아닌가요?

차. 재영

- 1) (당황) 저랑은 잘 안맞는 것 같고, 밤샘은 곤란하기도 하고...

재영이 든 전단지를 가리키며 말하는 지훈. 아차 싶어 뒤로 숨기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이 전단지를 달라는 듯 손짓하면, 재영이 의아해하며 전단지를 건넨다.
전단지를 마치 위조지폐 검사하듯 살펴보는 지훈.

카. 지훈

- 1) (말 끊으며) 가짜는 아닌데...

찌라시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지훈이 의아한 재영.
띠링- 그때 문이 열리고 후줄근한 옷차림의 여자가 들어온다.
돌아보는 재영의 눈이 번쩍 뜨인다. (어린 시절 스무살의) 민아다.

타. 재영

- 1) 민아...누나?

파. 민아

- 1) (경계) ...네?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재영을 한번 훑어보더니 무시하고 지나치는 민아.

하. 지훈

- 1) 싫으면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초대장은 아무한테나 가는게 아닙니다.

멍하게 민아를 쳐다보는 재영의 얼굴이 2쌍의 재영 얼굴로 오버랩되며-

2. 편의점. 밤. 실내/외

[자막: 며칠 전]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바깥을 계속 훑음거리며 재영의 얼굴.

한 밤중의 대학교 인근 편의점. 신경이 온통 바깥에 쏠려있는 재영.

바코드를 찍던 재영이 편의점 도시락 하나를 들고 바코드도 찍지 않고 창밖만 바라본다.

계산도 안해주고 어딜 보는가 싶어 재영이 쳐다보는 쪽을 같이 쳐다보는 손님.

손님은 정장 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발라 붙인게 어디 웨이터인가 싶다.

(손님은 실은 심야 카페의 전임자 알바였을지도 모른다)

보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민아와 민아의 남자친구. 1쌍에서와는 달리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이다. 앞에 앉은 남자는 심각하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고 울먹이기만 하는 민아. 누가봐도 헤어지는 연인의 모습이다. 흥미롭다는 듯 쳐다보는 손님.

가. 손님

1) 여자가 메달리고 있나봐요? 남자가 잘생겼네...얼굴값 하는구만

나. 재영

1) (발끈) 무슨 소릴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자가 아깝죠!

재영이 정색하자 어이가 없는 손님.

평동- 밤12시를 알리는 알람이 울리자 기다렸다는 듯 바코드를 찍는 재영.

계산을 하려던 손님이 카드를 내밀며 고개를 갸웃한다.

다. 손님

1) 이거 액수 맞아요? 너무 조금인데?

라. 재영

1) 12시 지나서 폐기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마. 손님

1) (살짝 감동) 이상한 본인줄 알았더니 좋은 분이셨네

카드를 받고 돌아서려던 손님이 문득 돌아서서 꼬깃한 종이 하나를 건넨다.

바. 손님

1) 팬찮은 알바 필요하면 여기 함 가봐요

사. 재영

1) (무심하게 받아들며) 아-네

아. 손님

1) 거 아무한테나 주는거 아니니까 잘 가지고 있어요

손님이 타박하자 마지못해 주머니에 집어넣는 재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물건을 들고 밖으로 나간다. 나가면서 민아를 한번 쓱 보더니 고개를 갸웃 하고 사라지는 모습이 얄밋다.

잠시 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민아가 남자의 옷자락을 잡는다.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나는 남자. 힘없이 떨어지는 민아의 손, 그 모습을 쳐다보는 재영의 마음이 아린다. 고개를 묻고 눈물을 푹푹 흘리는 민아.

[시간경과]

민아가 술을 카운터에 올려놓는다. 바코드를 찍는 재영

자. 재영

1) 안주 없이 마시면 속버려요.

차. 민아

1) (피식-) 까불지말고 계산이나 해

술을 들고 테이블로 가서 앉는 민아. 술병을 까더니 나발을 분다. 매장 안을 살피는 재영. 손님은 하나도 없다. 슬그머니 폐기 도시락 하나를 꺼내든다. 포장을 벗기고 전자렌지에 도시락을 데우는 재영. 땡- 도시락이 데워지고 뜨거운 도시락을 들고 테이블로 가는 재영. 민아의 앞에 가서 앉는다.

카. 재영

1) (도시락 까며) 이거랑 같이 마셔요.

타. 민아

1) 나보고 폐기 먹으라고?

파. 재영

1) (움짤해서 슬그머니 도시락 치우며)

2) 누나, 많이 힘들죠?

갑자기 분위기를 잡는 재영. 민아는 애가 뭘 소릴 하려고 그러나 싶어 쳐다보고

하. 재영

1) 그판 새끼 가라고 해요...대신...

2) (심호흡하며 민아의 손을 잡는다) 제가 있어줄게요.

재영의 오글거리는 고백에 어이를 상실한 민아. 잠깐 재영을 쳐다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정색한다.

거. 민아

1) 야-, 너 내가 우스워?

너. 재영

1) (당황) 네...?

더. 민아

1) 남자한테 차여서 질질 짜고 있으니까 막 쉬워보이고 그래?

러. 재영

1) (당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누나가 안되보여서...

머. 민아

1) 3년을 간보면서 이럴 때 기다렸니? 맘 약해지면 막 다 받아줄거 같아? 너 진짜 저질이다?

벌떡 일어나 자리를 뜨는 민아. 망연자실하는 재영.

머. 재영(NA)

1) 저질...이라고 했다.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 앉아있는 재영. 민아가 남기고 간 술이 눈에 띈다.

환김에 벌컥벌컥 마신다.

때마침 점점을 하러 온 점장이 재영을 발견하고 멈춰선다.

술병을 물고 있다 점장과 눈이 마주치자 얼음이 되는 재영.

서. 점장

1) 이놈 봐라? 누가 근무 중에 술 마시래?

어. 재영(NA)

1) 나는 근무 중에 술을 마시는 저질이니까...알바도 잘렸다.

3. 산복도로. 밤. 실외

알바에서 짤리고 텔레텔레 퇴근을 하는 재영. 술기운이 올라와 헤롱헤롱 한다.

문득 전화기를 꺼내 민아의 번호를 찾는다. 삭제 버튼을 찾아 누르려던 재영. 차마 누르지 못한다. 잠시 고민하는 재영. 삭제가 아니라 통화 버튼을 누른다.

띠리링~ 신호가 가고-암전

4. 재영의 방. 밤. 실내

침대에 널부러져 잠이 든 재영. 잠시 후 눈을 번쩍 뜬다. 폰을 꺼내보는 재영. 민아에게 수십통 전화를 건 기록이 있고, 민아로부터 문자가 와있다.

‘너 한번만 더 이러면 경찰에 스토키로 신고할거야!’

고개를 푹 처박는 재영. 후회막심이다.

가. 재영(NA)

1) (좌절) 진짜 저질이 되버렸다.

[몽타주] 몽타주.재영이 방에서 구직 정보를 차고 연락을 하는 모습. 검색하고 전화하고, 메일을 보내고...

나. 재영(NA)

1) 저질인건 저질인거고 알바는 구해야만 했다.

2) 하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그때 접어서 던져둔 손님이 주고 간 꼬깃한 전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플래시백] 전단지를 건내주는 손님

다. 손님

1) 괜찮은 알바 필요하면 여기 함 가봐요

꼬깃한 전단지를 펴보는 재영.

‘심야카페 밤12~해뜰때까지 일당 10만원’

일당 10만원이라는 문구에 눈이 번쩍 뜨이는 재영.

5. 산복도로 주변 골목. 밤. 실외

전단지에 쓰인 주소를 지도앱에 입력해도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고, 엉뚱한 곳만 빙빙 돌며 헤매는 재영. 스마트폰 GPS도 오락가락한다. 포기하고 전단지에 그려진 지나기체 요약된 약도를 보며 골목을 헤맨다. 보물찾기 지도 같은 약도에 쓰여진대로 따라가면 가로등도 없는 으스스한 골목 사이를 빙빙 맴돈다.

계단과 골목을 오르내리며 지칠대로 지친 재영. 높은 계단 앞에 선다. 올라갈 생각을 하니 답답한데. 옆쪽의 관광객용 모노레일 승강장은 이미 문을 닫았다.

그때 턱- 하며 불이 켜지는 승강장 출입문. 재영이 홀리듯 승강장 안으로 들어간다.

6. 모노레일 승강장

재영이 승강장에 들어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CCTV에 비춰지고-
2층 플랫폼에 다다르자 기다려다는 듯 모노레일의 문이 열린다.
재영이 올라타자 문이 닫히고 웅-소리와 함께 가파른 선로를 타고 올라가자 부산의 야
경이 펼쳐진다.
야경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덜컹- 소리가 난다.
갑자기 겁이 나는 재영. 심광이 비추며 사위가 확-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진다.
다시 고요해지는 모노레일.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 풍경이다.

가. 재영

1) (안도) 와 씨- 사고난줄 알았네

7. 산복도로 주변 골목. 밤. 실외

꼭대기에서 내리면 조용한 골목이다. 저 멀리서 무언가 소음이 들리는 듯 하다.
점점 밝아지는 골목을 따라 돌아 들어가면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린다.
보면 카페 앞에서 구식 스타일의 양장을 입은 남녀가 손을 마주잡고 애절한 표정으로 마
주보고 있다. -동백과 영훈이다.

가. 동백

1) 이렇게 말해주도 굳이 떠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나. 영훈

1)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동백

1) 내 말을 믿지 못하는건가요?

라. 영훈

1) 믿어요. 당신 말대로 난 죽을지도 모르겠죠.

2)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동백의 손을 끝내 뿌리치고 돌아서는 영훈이 재영을 발견하고 흠칫 놀란다. 재영을 노려
보다 어리버리한 표정을 짓는걸 보고 무시하고 지나치는 영훈.
동백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재영을 잠시 쳐다보다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영화같은 장면을 보고 잠시 당황한 재영이 카페 입구로 다가간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음악과 대화 소리. 묘한 분위기에 여기가 맞나 싶어 망설이지만 무언
가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음악 흐르며 슬로우 걸리기 시작)
문이 끼익- 열리고 오묘한 색의 조명으로 밝아지면서-

8. 카페 안. 실내. 밤.

(음악 이어지며) 재영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고, 카페 안 구석구석 살펴보는 재영의 얼굴과 손님들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커피를 내리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지훈의 느끼한 얼굴에서- 띠링-소리가 들리며

[다시 현재]

띠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린 민아가 가게로 들어선다. 불만 가득하지만 앓된 얼굴이 웬지 귀엽다. 민아를 보고 놀라는 재영.

가. 재영

1) 민아...누나?

나. 민아

1) (어리둥절)...?

민아가 재영을 지나쳐 한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민아가 자신을 무시하자 오기가 생기는 재영. 민아의 앞에 앉는다.

다. 재영

1) 미안해요 진짜. 제가 술이 약해서 실수했어요.

라. 민아

1) 저 아세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마. 재영

1) 이민아 맞죠?

바. 민아

1) 네.

사. 재영

1) 부산 영화제 사무국에서 일하는...?

아. 민아

1) 아닌데요?

재영이 자꾸 캐묻자 불쾌해진 민아가 가방을 챙겨 나가려 한다. 민아가 일어서려 하자 재영이 먼저 사과하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

차. 재영

1) 아네요- 미안해요. 제가 같게요-

카. 재영(NA)

1) 정말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풀릴까?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하는 재영. 재영의 대답을 기다리던 지훈이 최후 통첩을 한다.

타. 지훈

1) (전단지 들어보이며) 이 초대장은 아무나 주는게 아닙니다. 지금 떠나면 다시는 이 곳에 올 수 없습니다.

2)

지훈의 말에 민아를 한번 쳐다보는 재영.

파. 재영

1) 저 여자분 여기 자주 오시나요?

하. 지훈

1) 네, 요즘엔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거. 재영

1) 일...하겠습니다.

재영의 답을 들은 지훈의 묘한 미소-

1부 끝-